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16)

주제: 일본 언어의 탐색-동아시아에서 유라시아까지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16 회 강연에서는 중국문화대학교 일본어문학과 학과장인 진순익(陳順益)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언어의 탐색-동아시아에서 유라시아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일본이라는 민족과 일본어라는 언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직까지 확실한 정론은 없다. 또한 일본어는 어느 어족에 속하는 걸까? 이는 줄곧 언어학자들의 논의 대상이었다.

일본어는 일본 고유의 화어(和語), 중국에서 온 한어(漢語), 그리고 세계 다른 언어에서 온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다. 진 교수는 먼저 일본어의 한어(漢語) 독음(讀音/한자의 음)을 먼저 분석하고 강연 후반에서는 일본어의 화어(和語)와 히브리어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두 언어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어 한어(漢語)의 발음 특징

진 교수는 일본어의 한어(漢語)는 전래 시기에 따라 한자음(독음)이 다르며 오음(吳音, 오 지방의 발음), 한음(漢音), 당음(唐音, 일본에 전해진 송·원·명·청대의 한자음) 등의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한음(漢音)은 당나라 장안(長安) 부근의 음을 말하며 견수사(遣隋使), 견당사(遣唐使)에 의해 일본에 많이 전해졌다. 오음(吳音)은 중국 남방 오나라(吳國)의 음으로 5, 6 세기에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졌다. 당음(唐音)은 송음(宋音)이라고도 부르며 송나라 이후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 대부분 불교 용어이다. 예를 들어 「행(行)」이라는 글자는 오음(吳音)의 「ぎょう」(예: 行政ぎょうせい), 한음(漢音)의 「こう」(예: 銀行ぎんこう), 당음(唐音)의 「あん」(예: 行脚あんぎゃ)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진 교수는 한자음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상 한자 독음(讀音)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대만어, 중국어 한자음에서 일본어 한자음을 대략 추론할 수 있다. 원칙상 중국어 발음과 대만어 발음이 같으면 일본어 발음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어서 진 교수는 일본어 특수음의 축음(促音)과 발음(撥音)의 발음 규칙을 설명하였다. 축음(促音)은 중국어의 입성자(入聲字/P, T, K의 세 가지 발음)와 합친 것으로 낫토(なっとう), 八本(はっほん), 학교(がっこう) 등이 있다.

발음(撥音)의 발음규칙은 중국어의 「ㄢ (an), ㄣ (en)」 음을, 일본어에서는 원칙상 「ん」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安(あん), 陳(ちん)의 발음이다. 위와 같은 특수박(特殊拍) 및 단음(單音) 외에 일본어 단음절 2박자의 한자음은 い(i) 아니면 う(u)로 발음한다.

일본어와 히브리어의 유사성

일본어와 히브리어 두 언어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많은 풍속문화와 고대 수메르문화(古蘇美文化), 유대교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른바 「일유동조론(日猶同祖論)」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일유동조론(日猶同祖論)」은 스코틀랜드(蘇格蘭) 선교사인 노먼 맥레오드 선교사가 편의를 위해 정리한 이론으로, 일본인은 유대인의 잃어버린 10지파(失落的十支派)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감정(鑑定) 결과 일본인의 유전자는 유대인과 동일한 표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역사학자들은 「일유동조론(日猶同祖論)」에 대해 신중하고 건강부회(穿鑿附會)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진 교수도 이 학설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9,000km 떨어진 두 언어가 왜 이렇게 우연한 공통점을 갖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천황과 고대 유라시아 문명(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헤롯문)의 연관성이다. 히브리어로 초대 진무 천황(神武天皇)의 이름을 상징하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나, 일본 천구(天狗)와 이스라엘인이 예배를 드릴 때 착용하는 물건이 같다는 점 등이다. 川守田英二는 『일본 언어 고고학』 등의 저서에서 문자상이 비슷하고 발음이 유사하며, 히브리어로 일본 국가(國歌)를 번역할 수 있는 것, 일부 지방 민요의 가사의 함의(含意) 등 일본어와 히브리어가 다방면에서 상당히 유사함을 증명하였다.

진 교수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어의 한어(漢語)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에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일본어 한자 독음(讀音)의 음독(音讀) 부분은 중국어와 대만어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본어의 화어(和語)가 만 리나 떨어져 있는 히브리어와 얼마나 놀라운 공통성을 갖고 있는지는 언어의 자의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와 고대 히브리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網頁連結: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撰稿: 鍾季儒 日文系・助理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